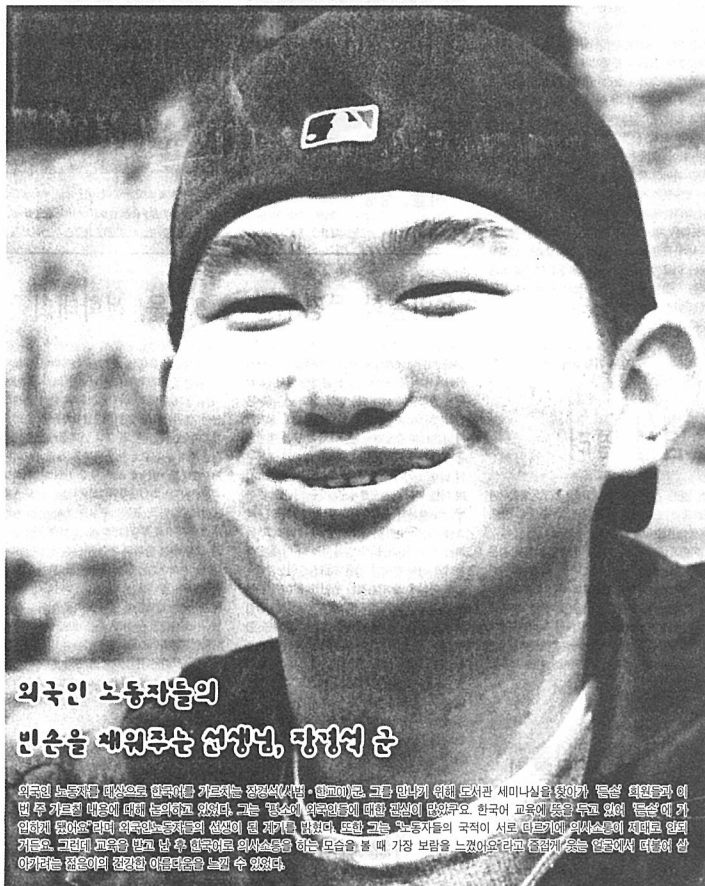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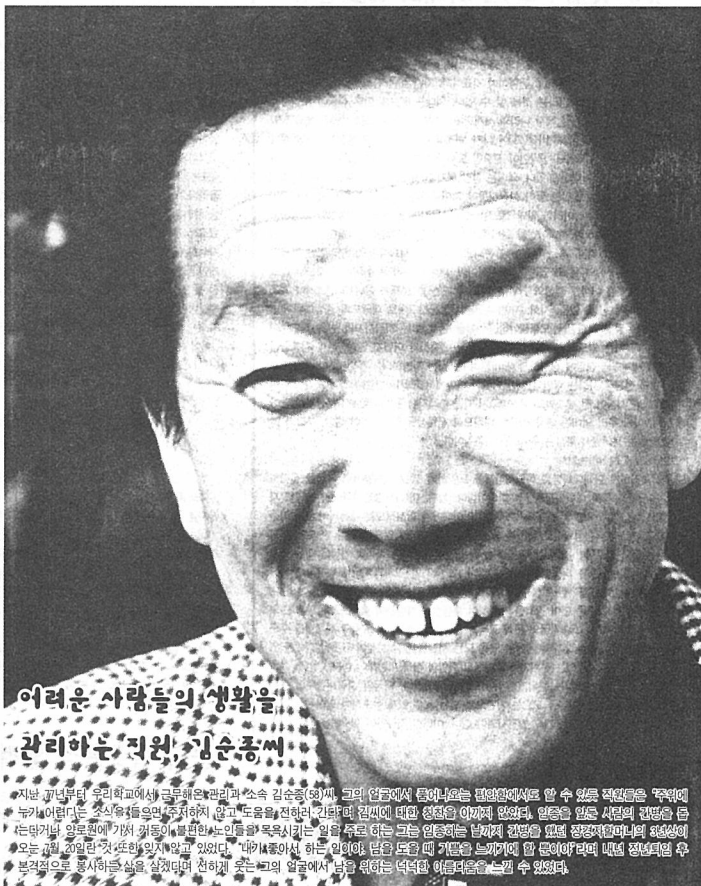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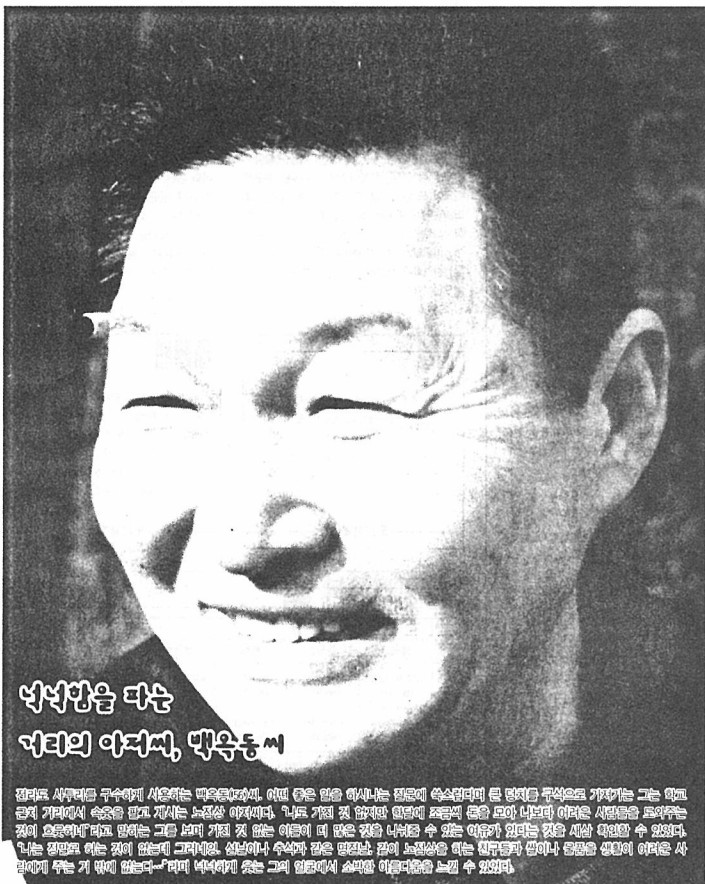
창간 1965년 4월 11일 (주인)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 겸 주간 김규진 편집장 정호정 인쇄인 홍은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양산리 산 89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손을 채워주는 선생님, 장정석 군

[illegible]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직원, 김순종씨

[illegible]

넉넉함을 파는
거리의 아저씨, 백옥동씨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외국인 교수, 설라이 군웨이씨

[illegible]

외대는 지금 '총장' 춘추전국 시대

우리학교 총장선거에 11명의 교수가 입후보했다. 교수회의와 총장후보 선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지난 12일(금) 입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하고 등록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자가 5인 이상인 세에 따라 투표는 2차에 걸쳐 치러진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는 30일(화)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범외대인 결의대회 및 총장후보 초청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19일(금)까지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를 통해 총장후보들에게 질의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받는다. 직인노조도 지난 12일(금) 직인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고 오는 17일(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 선거일정을 확정해 직접적으로 총장선출에 참여할 계획이다.

- 4/17(수) 직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 4/30(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주최 초청토론회, 직원노조 공동발표 발표
- 5/3(일) 교수회의 주최 총장후보 소견발표 및 1차 투표
- 5/6(화) 1차 투표 결과발표
- 5/10(금) 1차 초청토론회
- 5/14(일) 2차 초청토론회
- 5/17(수) 총장후보 소견발표 및 2차 투표
- 5/20(화) 법인 이사회 추천
- 5/21(화) 교수회의의 평가회, 해산



1. 김경옥 교수
(사범·독일어교육)

1947년 8월 2일 부산출생
1971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졸업
1983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교수
2001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

1. 연구기반조성에 필요한 모금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2.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3. 보직인사는 적재적소보다 공평의 원칙이 우선하도록 하였다.
4. 장의사제도로 전환하여 외대 재도약을 시도
5.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전인교육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지향하였다.
6. 급변하는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학부교육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였다.
7. 학부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다.
8. 연구실적에 대한 불사확고뿐만 아니라 학생진로지도도 교수업적에 반영시키었다.
10. 외대주변의 환경을 정화하였다.
11. 동문회, 교수님들의 개인적 연고를 활용하여 학부졸업생의 취업을 촉진시키었다.
12. 대학원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지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이윤애 교수
(경영·정보경영)

1948년 1월 5일 경기도 개성 출생
1971년 2월 연세대학 응용통계학과 졸업
1985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1995년 ~ 1998년 경기개발연구원 지문교수

1. 양 캠퍼스의 학사, 인사, 재정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 발전을 실현
2.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의 합리적 운용
3. 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4. 강남과 경기 지역에 교직원 조양아파트 건설 추진
5. 김치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후유해 막고 공익재단의 설립을 추진
6.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내인력 및 교비사용의 공개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7. 퇴직금 정산은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8. 외대 강남캠퍼스 설립
9. 이쁜·본관원공, 기숙사건립을 위한 경회원 입주권의 매입추진
10. 양인·학부생을 위한 고급 강의실 증설
11. 대학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논문지도의 재정지원 확대
10. 현 직원수를 증결하고 자전감소를 통한 예산 절감



3. 기연수 교수
(사상·노어)

1949년 12월 27일 출생
1969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학과 졸업
1980년 ~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학과 교수
2000년 ~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연구소 소장

1. 김치문화의 확산을 위한 장의사제도를 구축
2. 전체 교수회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였다.
3. 이쁜, 양인 캠퍼스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4. 양인 캠퍼스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5. 교수·연구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6. 환경탐색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7. 학사관리를 엄격하고 지식정보의 사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의 선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8. 등록금 예외제를 도입하고, 대학구성원 모두가 수급할 수 있는 등록금 선진방식을 제시하였다.
9. 500여원의 학교발전 기금을 모금하였다.
10. 외대의 특성화, 명문화, 국제화를 이루어 반드시 외대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였다.
11. 직인 인사 전문, 책임보직제 실시



4. 박규하 교수
(법·법학)

1939년 11월 5일 서울 출생
1962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졸업
1976년 8월 연세대학 법학박사학위취득
1988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법과대학 교수

1. 장의사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거시적 협의체 구성하였다.
2. 임기 첫째에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 교수·직원의 파격적 봉급인상하였다.
3. 교수연구업적평가제도 설계, 포상제도 시행하였다.
4. 이공계대학을 국가경쟁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산실이 되게 하였다.
5. 외대의 파격적이고 참신한 구조조정 단행했다.
6. 기업입학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5. 허명영 교수
(상경·경영)

1945년 2월 15일 서울 출생
1969년 2월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1971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 상경학부 무역학과 교수
1997년 2월 ~ 1998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세계경영대학원 원장 겸 경영정보대학원 원장

1. 기금확충을 위한 외부활동에 전념하여 학교재원의 등록금 의존율을 현재 80%에서 60%선까지 단적으로 낮추어 갔다.
2.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외대발전에 중심으로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투명한 재단운영으로 각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단이 외대에 참여하여 한다.
3. 우수한 교원의 지식적 확보와 연구 및 학습여건을 향상시키었다.
4.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었다.
5. 서울배움터에 기숙사를 신축, 용인배움터에 기숙사를 확충하였다.
6. 퇴직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구성원들이 참여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6. 원궁근 교수
(국제지역대학원)

1952년 2월 13일 출생
1976년 2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3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 교수·국제지역대학원
한국유럽학회 회장·외교통상부 자문위원

1. 김경옥 및 김치문화의 진인 절대 불가
2. 파견한 행정개혁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었다.
3. 용인캠퍼스의 분리 운영 및 독자발전
4. 퇴직금 문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퇴직금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게 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처리방향을 결정
5. 외국어계열에서 서울배움터 (어문학), 용인배움터(지역학)이라는 개념 구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부의 기본방향을 정립함.
6. 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2개 전공을 의무화함.
7. 교수회의회를 학과기화함.
8. 대학협력부총장제와 여성부총장제를 도입함.



7. 박철 교수
(사범·서반어)

1951년 8월 12일 출생
1972년 한국외국어대학 서반어과 졸업
1985년 한국외국어대학 서반어과 교수
1999년 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인사 연구 교수
2001년 미국 하버드대학 초빙연구 교수

1. 전체교수회를 정례화하여 민주적인 의사반영을 보장하였다.
2. 용인배움터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정, 행정, 교육 등 점차적으로 독립시키었다.
3.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경영제와 공개평가제를 도입하였다.
4. 대학협력정보를 담당하는 부총장직제를 신설하였다.
5. 공대건립 신축
6. 서울·용인배움터 기숙사 신축, 건축 촉진
7. 학교발전의 의지와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



8. 김명수 교수
(사회·행정)

1942년 2월 14일 출생
1965년 2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1978년 8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1년 2월 ~ 2002년 2월 서울배움터 부총장

1. 적재적소의 인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학교발전의 기초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내었다.
2. '장의사제'를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목표는 경영정책상, 원점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개편안을 만들도록 지원하였다.
4.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5. 용인에 총장을 두어 1학년 2종제에 추진 등을 통해 양 대학원의 균형발전
6. 단과대 및 각 대학원의 자율경영체제 구축
7. 양인·학부생을 위한 고급 강의실 증설



9. 이동운 교수
(상경·무역)

1963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84년 한국외국어대학 무역학과 교수
1994년 ~ 1996년 한국외국어대학 기획조정처장
1998년 ~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 세계경영대학원장

1. 도덕성과 재능을 갖춘 재단 영입 추진
2. 용인배움터를 자율적 행정체제로 개편, 각 대학원 별 자율경영
3. 행정의 효율적개선,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전문성 확보
4. 시설 및 교수 대폭 확충, 중요 중심 내실
5. 서울배움터·학생회관 신축, 공동동,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기숙사 신축
6. 용인배움터·제2기숙사 신축, 도서관 건립
7. 교수 위상강화와 재정의전 수업을 위한 학과장 회의 신설
8. 한 교수 대 학생 비율 35 : 1에서 28 : 1 달성
9.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및 기숙사, 용인배움터 중앙도서관과 제2, 제3기숙사 신축 추진
10. 현재 직원을 재교육해 업무전문성 향상



10. 안병근 교수
(사회·행정)

1941년 2월 8일 출생
1964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75년 8월 한국외국어대학 행정학과 교수
1988년 2월 ~ 1994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부총장 겸 대학원장
1994년 4월 ~ 1998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총장

1. 재단 정상화를 위해 재단의 공명화, 육성의 의지가 있는 재단 영입 추진, 독립과 동 세가지 형태를 구상하고 연구·검토하고 협의하여 합의 도출하였다.
2. 용인·독립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용인 배움터의 분리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3. 재단의 관리를 재단과 협의하여 일원화 방안을 강구, 교수인 사업으로의 전환방안을 찾았다.
4. 주요 논점을 논의하는 열린 총장(aff-line)과 사이버 총장(online)을 개발하였다.
5.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및 기숙사, 용인배움터 중앙도서관과 제2, 제3기숙사 신축 추진
6. 현재 직원을 재교육해 업무전문성 향상



11. 김태정 교수
(통상·일본어)

1941년 11월 20일 출생
1963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어과 졸업
1982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어과 교수
1988년 3월 ~ 2001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교수회의 회장

1. 전 대외상의 외국어 구사능력강화를 위해 졸업 인준을 도입, 2개 전공 졸업생 취득,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실질적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였다.
2. 서울배움터·사범대학에 중국어교육과와 일본어교육과 신설
3. 용인배움터·동양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인문대학에 사회학과와 문화인류학과 신설, 정보통신공학부에 디지털콘텐츠개발과 신설
4. 사이버대학 개설과 사이버 교육시스템 강화
5. 장기간 교수임제화를 마련, 학과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신임교수 임용제도를 확립하여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 : 25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원하였다.
6. 현재 직원을 재교육해 업무전문성 향상

대학에는 '외대학보'가 있습니다

외대학보 기자가 되십시오

자 02학번 새내기 등 대학신문에 관심있는 누구나
모집대상 대학원, 사회학, 문학부, 학부생, 사범부, 인문대학, 인문부
원시인사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 기자실
신청기간 4월 19일 금요일 5시까지
문의 홈페이지 <http://hubs.hskbo.co.kr>
서울 02-961-4152 / 4153 / 4154 / 4155
대표메일 ocdepress@phmail.net

동상이몽

▲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실은 '동상이몽'처럼 제각각일 때 심각해진다. 그 동안 12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던 등록금감정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싼 등록금위원회와 총장간의 관계가 그 모양이다.

▲ 11월에 열린 등록금위원회에서 학생들은 6.8% 오른 등록금 중 퇴직금 적립금 10억원과 용인배움터 도서관 설계비 5억 2천만원이 예산안에 부당하게 포함된 것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학교측 등록금위원회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여 15억 2천만원을 예산에서 삭제할 것에 동의하고 등록금인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 12차 등록금위원회에서 학생들은 6.8% 오른 등록금 예산안에서 15억 2천만원을 환불할 것을 요구할 중점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총장은 이미 6월초 재단이사장이 6.8% 인상된 등록금을 최종 결정했기에 환불은 불가능하고 복지시간으로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혀 등록금위원회가 현재 표류 중이다.

▲ 등록금위원회는 6.8%인상된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닌 기해정된 금액임을 전제하고 12차에 등록금위원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총장은 이와 다르게 복지시간을 재출하기 위한 논의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전제'를 깔고 등록금위를 12차까지 끌고 온 셈이다.

▲ 조총장은 지난 8차 등록금위원회에서 열린 대학원위원회에서 용인부총장에게 등록금위원회의 권한을 전권 위임했다. 그 이후 그는 등록금위는 '책자'인 논의를 따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발로 사비를 결산했고 학생들은 조총장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점으로 조류할 총장이 강요한 '복지' 민투의 인지를 그에게 맡긴다.

전원출



외대는 장애인 출입금지 학교? 지체장애인 신성렬군의 학교생활

참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며 밝게 웃으면서도 "미국에선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남들과 틀리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한다. 졸이여 기자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학교에 장애인이 저랑도 또 있나요?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소나기가 오더니 곧 그쳤다. 쌀쌀한 날씨를 좋아한다 그는 명수당으로 걸어간다. "외국서 오래 살았으니 여행 많이 했겠네요" 스치듯이 던진 질문에 놀라워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10개국 넘게 여행했어요. 멕시코, 칠레, 홍콩, 하와이... 가장 좋았던 곳은 남극 근처에 있던 칠레 땅 마젤란이었어요" 기자가 가졌던, 장애인들은 몸조심을 하기 때문에 활동적이지 않다는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 명수당으로 들어선 신군이 몸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 "조금 불안했어요"

보인의 요인은 1미터 정도 의 작은 언덕. 하지만 그와 다른 장애인들에게 결코 '작은' 언덕이 아니리라. 만약 그의 여행자가 우리학교 교감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면, 그는 여행을 즐기 수 있었을까.

는에 다리에 힘이 없는 많은 장애인들은 다리를 벌릴 수 없다고 어떻게 어떻게 불 일을 봐도 물을 내리는 손잡이를 누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몸 같은 일이에요" 벨트를 누르기가 장애인들에게는 몸 같은 일이라니, 아득해진다. 현재 용인 배움터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후북관과 남자기숙사 1층에 하나씩 있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양관, 어문관, 자연대, 공대, 도서관... 그 어느 곳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학교의 차례다

104호, 그의 기숙사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자리에는 의자대신 휠체어가 자리잡고 있고 책상에는 전공서적과 여러 책들이 놓여져 있다. "공부 열심히 하네요" 슬쩍 건드리니 웃으면서 공이 툭 튀어나와 밝았다. 졸업하고 우리

교 동남역대학에 들어가서 통계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공부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웃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대학생활에 충실하고 싶어요" 누구나 꿈수 있는, 소박한 소망을 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리에 들고 싶고, 동기간의 정을 느끼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고... 그는 기자의 시간동안 동행하며 몇 번이나 "후회하지 않아요"고 말했다. 우리학교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제 학교의 차례다. 신군이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숙사 사위실,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이 전혀 없어 사위 중 넘어갈 때도 종종 있었고 이에 비답에 있어서 사위한 적도 있었고는 말을 들으면서, 확보사로 돌아와 충장부대로 나온 교수들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중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기자가 느낀 답답함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우리학교는 비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의 차례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통화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12월(금) 오전 11시 50분경, 기자는 기숙사에서 막 나오려고 한다는 그에게 학생회관 앞에서 서둘러서(사위실)를 타고 올테니 아무리 늦어도 20분전에는 오겠지. 그로부터 25분이 지난 12시 15분에 되는 순간, 외아들하며 기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걸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곧 도착해요. 걸어서? 비장애인이 숨이 차는 기차편으로 오르막길을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올라와 기자와 첫 대면을 한 신성렬(사위실·서반이여 02)을 만난 때는 12시 20분, 그가 기숙사를 나온지 30분만이었다.

송강기·렘프게단 전무한 학교

"방차가 많이 다녀오면 좋겠어요. 아무리 일찍 준비를 해도 차가 지나가버리니..." 그는 방차가 사람들이 꼭 전차로 정류장을 몇 번이나 지나쳐 버려서 책만하고 걸어 올라왔다고 자조지중을 얘기했다. 잘 걷지 못하는 그에게 용인배움터의 넓은 공간을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방차가 기숙사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는 기차편 배움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이동할 수 밖에 없다.

기숙사에 살고있는, 21살의 늦깎이 대학생인 신군은 소이비이다. 남보다 이른 7개월에 태어나 인류메이터에 있는 동안 발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마비되어 되어 그로부터 발을 잘 쓰지 못한다고. "그나저나, 4교시 수업을 빨리 들어가 할테데..." 온 몸게 차를 들고 기인 한 학생이 태워워 어문관까지의 편하게 갔지만 그가 수업을 듣는 교실은 4층, 게다가 송

강기나 렘프게단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왼쪽팔로 잡고있는 지팡이를 땀이 서너 개단 위를 다리고 오 문족 지팡이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초판에 오르는 계단을 그는 4층까지 5분이나 걸려서, 그것도 몇몇의 힘을 들어서 올랐다. 40분전부터 수업준비를 한 그는 수업에 늦고 만다. "다른사람들보다 먼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허황거려리 그는 강의실에 들어선다.

실용영어 수업이다. 30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 그는 참 열심히다. 가끔씩 단자지는 질문에 유창한 발음으로 정답을 말한다. 그는 칠레에서 12년, 미국에서 6년동안 살다가 작년 6월에야 귀국했다고 한다.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수업이 끝나고 신군이 기자에게 책을 가방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다. "여러가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가요" 어문관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으며 그는 "외국에서 있을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게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5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라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아예 택시도 안 태워줬다고, 그때는.

'정애가 참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과방에 들르자고 제안했다. 'Ara'라는 진공스피드 학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에게 기자가 생각하고 있던(편견일여 틀림없는) 장애인의 우위를 발견할 수 없다. 새터의 모교지에 빠지지 않고 어울려서 술도(소주)도 맥주도 좋아한다(다) 잘 마신다는 그는 "정애가 자랑은 아니지만

재래식 번기, 공포의대상!

"파 한 군데 봤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보았는 기자의 질문에 신군이 대답하며 후생복지관으로 안내한다. 후북관 1층 화장실에 있는 장애인용 소·좌변기와 세면기를 가리키며 그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상태에서(발달을) 보게 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는 재래식 번기를 보자 이맛살을 찡푸리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재래식 번기에서는 다리를 벌려야 하

시례 -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인 편의 '뽕뽕'



지난 3월 5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춘 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입학식을 거졌다.

올해 10개과 220명의 입학생을 받아 '한국재활복지대학'이란 명칭으로 문을 연 이 대학은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재활복지사들이 3년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2년제 전문대학이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숙사와 점자전자 노트, 특수버스, 자동 휠체어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입학정원의 약 50%인 120명의 학생들이 장애인이다. 또한 장애인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다.

이 대학의 초대학장인 김형식 교수 역시 장애인이다. 그는 1951년 한국전쟁 때 한쪽 팔과 부모를 잃은 뒤 장애인으로 사회에서 살아왔다.

앞으로 이 대학은 장애인의 비율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학생과 나머지 반의 장애인의 교우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기!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병신, 불구자, 장애인	장애인
정신인	비장애인
장님, 소경, 봉사	시각장애인
애꾸눈, 외눈박이	시각장애인
시맹은, 시력떨기	시시, 시시장애인
도라리, 바보, 얼간이,	정신지체인
둔신, 백지	정신지체
정신박약	정신지체
얕은방아, 질풍발이,	지체장애인
질풍발이, 편파	지체장애인
글사등, 글추, 글사	척추장애인
외팔이, 외팔목이	지체장애인(팔단장애)
난쟁이, 땅딸보	왜소증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방아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껌보	구개파열장애(언어장애인)

※ 자료출처: 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4.20

장애인의 날

:: 이동권
:: 교육권
:: 생존권
:: 시설비리 척결

:: 노동권
:: 참정권
:: 장애여성의 권리

용인 교통문제, 모니터 제도로 해결 시도

용인배우터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이하 학자주)에서 교통 모니터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5일(금)부터 한달간 진행된 이 제도는 23명의 모니터 요원이 노선버스와 스쿨버스 전 노선을 직접 이용해 통학하며 운행시간, 승차인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스쿨버스의 경우 승차를 요구했다. 스쿨버스는 사비를 들지 않는 직행버스여서 노선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해 이용자가 많은데 비해 버스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생활협동조합 부위원장 장유리(서유림·영어 01)장은 "모니터결과를 보면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총무부와 협의, 2학기 버스노선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광화문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신성우(동유림·노어 06)군은 "일찍이서 기다려 천구지까지 막아놓는 사람들이 때문에 서서오는 경우가 많다"며 "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늦게 온 사람이 없어서 가고 일찍 온 사람이 서서있는 것은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배우터에서 용인배우터로 오는 버스의 경우 좌석부족으로 얼마 전부터 소원스쿨버스가 한 대가 더 투입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좌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형스쿨버스를 더 선호해 소원스쿨버스는 항상 19개의 좌석이 다 차

지도 않은 채 출발한다.

버스기사 이상의에서는 "최대로 많은 학생을 태운 날이 12명"이라며 "꼭집은 버스를 내고 앉아서 올 수 있고 15분가량 더 빨리 도착하는데 왜 학생들이 안 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원스쿨버스는 용인배우터 도착 후 학생을 돌아오기 때문에 대형버스의 노선인 석계와 태능을 거치지 않고 직행해 이동시간을 단축했다. 소원버스의 투입으로 학생들이 서서 오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총무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소원버스도 대형버스와 동일할 정도로 이동해 중간에 타는 학생들을 태울 계획이다.

천호동 노선의 경우 지난 1일(월)자로 노선 버스가 생기고, 기존의 스쿨버스를 수요가 많은 곳으로 돌릴 계획이었으나 경기대원고속의 승무원부족으로 연기됐다. (주)경기대원고속 소장 권영규씨는 "있는 차도 가동 못할 정도로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회사에서도 최대한 빨리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기는 노선버스는 1113번 좌석버스도 간변역을 출발해 천호동, 중부고속도로, 우리학교를 거쳐 애반배우터로 운행하며 21일(월)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의 증설로 인해 기존의 파랑 13번 일반버스는 없어진다. 또한, 2002학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통학용 버스 2대 구입비 1억 6000만원도 천호동, 수원 노선의 증설로 인해 취소됐다.

스쿨버스의 운행은 올해 2월 전격입학을 통해 10대(대형스쿨버스) 중 8대(주)경기대원고속으로 변경됐다. 총무과 이요일 주임은 "경기대원이 큰 회사이고, 운영보조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경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90년도부터 10여년간 우리학교 스쿨버스 운영을 담당해온 (주)세원고속관광관리실장 박종관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이긴 하지만 단 한번도 하자가 발생하거나 결함이 없었는데 해마다 경기대원으로 바뀌었다"며 "방중에 가사를 맡기고, 차량정비, 자동차중합

보람까지 개장 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개장 1주일 전인 2월 22일(금)에서야 업체가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학생은 "스쿨버스의 경우 모조리들을 위해 차량을 대여할 때 15만원 정도 비용이 드나, 관공버스의 경우에는 2대인 30만원 가량이 든다"며 "평일에 경기대원고속의 독점적 학내 교통장악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교통문제 결과 보고서

■ 노선버스

1) 1117번, 1117-1번

배차 시간이 너무 불규칙적이며 사람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한다. 그리고 모한에서는 버스를 제대로 태워주지 않는다.

2) 1500번

안재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문에 대달리서도 학교에 올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장난 의자가 너무 많고 창문의 커튼이 너무 불결하다. 이에 모니터 요원은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몰라도 스쿨버스를 많이 만들어서 화단거리도 최소한의 시간안에 도착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3) 13번

버스가 많지 않고 좁은 길은 10-20분 가량, 최후는 55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배차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4) 1500-2번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버스가 다 차지 않더라도 출발시간에 맞춰 출발하면 좋겠다. 5분 늦게 출발한 것도 지각으로 이어진다. 하교시 꼭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도 세워달라는 곳에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학생편의를 위한 스

■ 스쿨버스

1) 영동포항

버스가 다 차지 않더라도 출발시간에 맞춰 출발하면 좋겠다. 5분 늦게 출발한 것도 지각으로 이어진다. 하교시 꼭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도 세워달라는 곳에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학생편의를 위한 스

2) 이문동행

지리가 불편해 소원스쿨버스는 10명도 타지 않는다. 정원을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천호동행

경곽이도 안키고 갈지라도 왔다갔다 운영을 하신다. 안전문제를 하렸으면 한다. 그렇지만 내리는 학생들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4) 이문동행

지리가 불편해 소원스쿨버스는 10명도 타지 않는다. 정원을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5) 이문동행

지리가 불편해 소원스쿨버스는 10명도 타지 않는다. 정원을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6) 천호동행

경곽이도 안키고 갈지라도 왔다갔다 운영을 하신다. 안전문제를 하렸으면 한다. 그렇지만 내리는 학생들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자료제공 : 생활협동조합 부위원장 장유리(서유림·영어 01)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 함께 가실래요?



2002 아리랑 대 축전 예정도

오는 29일(월)부터 6월 29일(토)까지 2달간(1월 1회 공연 일요일 제외) 평양의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이하 '아리랑')이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면 모두 아는 '아리랑', 흥화들 '아리랑'이라 하면 한국인들의 애환과 함, 저항정신을 대변하는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민족을 닮았다는 '아리랑'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어떤 것일까? 이번엔 열리는 '아리랑'은 북한에서 80년째 열리는 집단체조(대체제)이다.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광복직후부터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사이다.

1946년 5월 '소년들의 연합체조'에서 시작한 집단체조는 지금까지 약 84개의 작품이 만들어졌으며 총 900여회에 걸쳐 상연. 매년 약 1,600명이 관람한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에서의 집단체조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기념행사이다. 하지만 이번엔 열리는 '아리랑'은 밝은 날이 아닌 어두운 저녁에 펼쳐져 조명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거대 영상 배경막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형식을 도입한다. 출연자의 규모도 예술인 천, 학생들 10만 여명으로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행사이다.

지난 2000년도부터 기획 추진된 이번 '아리랑' 공연은 수용인원 15만석의 5·1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총 4개의장과 3장, 총장,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을 둘러보면 2장 2경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1500여명의 유취원생과 인민학교(초

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3장 3경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연하여 평양의 아경을 형상화한다.

전체 상연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지금껏 우리가 들어오던 정지적 집단체조 대신 민족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신보'는 현재 반 이상 공개된 종합연습 장면을 "선남, 선녀가 국부조명(스프라이트)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로라)에서 내려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진다"라며 '이신남'이라는 장면의 신비로움을 보도했다. 또 "천 수백명 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화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화한다"며 경이로움을 전했다.

현재 '아리랑'의 준비상태는 흥연습을 마치고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20여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과 함께 평양시가지는 갖가지 깃발과 환영 구호, 대형 그림판들이 세워졌고 관광객이 목을 숙삭식 준비에 한창이다.

월드컵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아리랑축전은 단순히 행사관람과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아리랑 축전이 말로만 들어오던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더 나아가서는 오후와 불신을 벗어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김종원 기자



한계 진행상황

지금껏 접수된 인원은 약 40~50명 선이다. 지금은 등록금 투쟁 등으로 인해 아직 이렇다 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홍보 계획

현재 한두루, 민들레영토 등 기행동아리 중심으로 홍보중이다. 기행 동아리가 없는 지대, 공대는 이번 기회에 새로이 만들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주로 영상물과 선전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북한 바로 알기'식의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기간인 2달이다. 행사참여는 언제든 할 것인가

우선 준비단은 4월 29일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 뒤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은 뒤 5월 중순쯤 반박 할 예정이다.

아리랑 축전으로 기대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바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행사가 잘 치러져 경의선 북한사업과 집결지 국경위원회의 방한을 통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앞단 우리 지식을 배우는 대학으로서 북에 대한 편협한 사고 대신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함께 가서 평양관광도 하고 아리랑축전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한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들 많은 실리다.

찌그러진 땅, 비참해진 낮은 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이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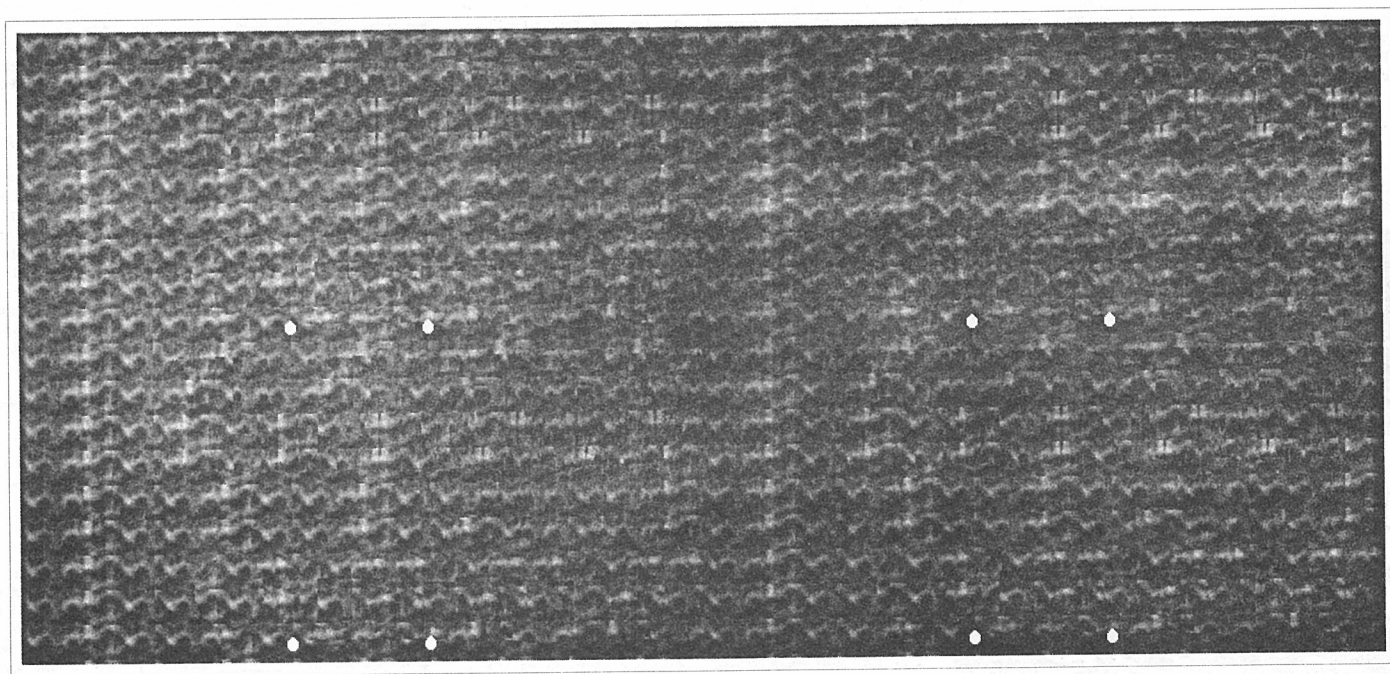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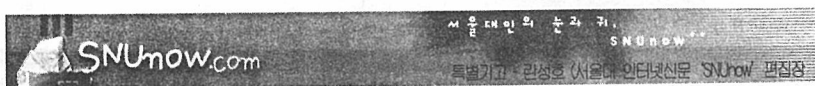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분쟁지역과 3차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북한, 베트남, 케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10개국 3차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직아이, 잘보면 보입니다. thufan.com을 찾으세요!



‘대학신문’의 인터넷 진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의 개표장에서는 매우 흔치 않은 일이 있었다. 서울대에서 두 개나 되는 언론이 인터넷을 통해 개표상황을 중계보도하고 있는 풍경이 벌어졌 것이다. 당시의 선거특별보도는 높은 기사조위를 기록했고, ‘서울대신문’은 총학생회보도 대학언론위원회의 대학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대내 두개의 언론

최근 학내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는 형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는 실시간 보도능력이라는, 인터넷신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다. 주간지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 대부분인 대학학보사의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편집장 입장이다. 인터넷 신문과 매력은 이렇듯이 아니다. 인터넷신문은 독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내주요사안에 있어 학내구성원들이 소용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터넷 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은 학내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록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학내자문회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인터넷신문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거대한 정보저장소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인터넷 신문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은 너무도 많다. 다양한 사진기사 등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종이매체보다 월등하다

는 점, 편집이 고정되지 않아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등.

인터넷신문의 몇가지 매력

얼마 전 ‘정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 만난 한 기자는 “몇 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대학신문의 위기’에 있어 인터넷대학신문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었다. 분명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신문의 장점은 잠재력으로 대학신문의 또 다른 활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인터넷신문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한 녀석만은 아니란 사실이다. 서울대의 SNUnow와 함께 인터넷대학신문의 선두주자였던 건국대의 ‘아이전국’, 전남대의 ‘모란꽃’이 결국 문을 닫게 된 사실은 인터넷신문이란 제제를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건국대와 전남대의 실패

특히, 우리가 되는 경우는 기존의 학보사가 단지 인터넷 사이트만을 오픈하여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 대학신문의 한계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매체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 종이매체와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자유로운 개인의 역량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에 비해, 복잡하고 최고와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기존의 종이매체 운영방식은 신속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종이매체의 의사결정구조는 가장 큰 개인과 독자간의 자충수인 리

드백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의 학보사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신문의 발행주기와 인터넷의 업데이트 주기가 동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1주에 신문 한 부를 만들어야 하는 막대한 일정 속에 매일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를 업로드 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터무니없는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하는 것보다, 해보고 망하자’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매체를 가진 대학이 이것해야 손에 꼽을 정도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칠 ‘어려움을 각오하고 인터넷매체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몇 가지 장애물로 인해 인터넷신문을 포기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매체의 인터넷진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이미 우리생활의 중요한, 그리고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음을 고려하면 인터넷매체란 차라리 당위의 문제일 것이다. 최근 대학이 이곳 저곳에서 인터넷매체를 장담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SNUnow에게나 동지가 생긴다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갑자기 SNUnow 강간준비단에서 오았던 반지가 생긴다. ‘안하는 것보다, 해보고 망하니까 나지.’

